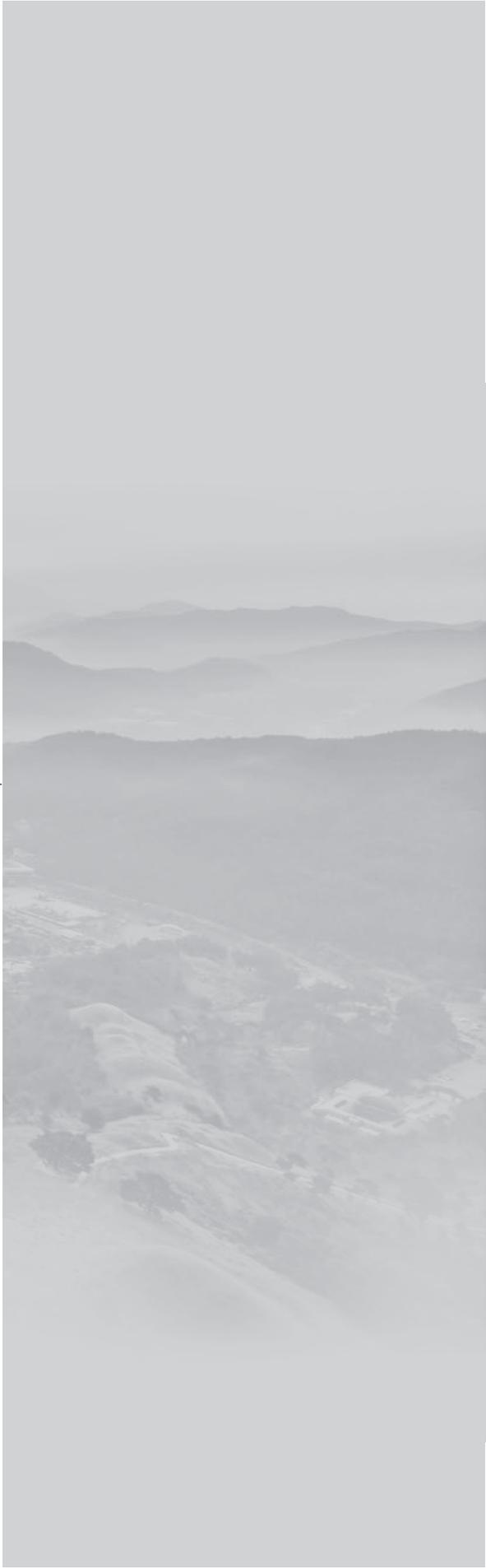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02

가야의 대외교류

Vol. 3

- I. 머리말
- II. 일본열도 출토 가야 문물
- III. 금관가야와 왜
- IV. 아라가야와 왜
- V. 소가야와 왜
- VI. 대가야와 왜
- VII. 맺음말



가야의 대외교류

I. 머리말

가야의 대외 교류는 고고자료와 문헌사료로 볼 때 왜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가야와 왜의 관계를 통하여 가야 전기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의 발전 배경과 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이제까지 국내의 고고자료와 문헌사료만 의존해온 연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선사시대 이래 김해 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의 교류에서 관문 역할을 담당해왔다. 3~4세기 일본열도에는 금관가야산 철정을 비롯한 철제품이 수입되고 4세기 말에는 금관가야의 공인에 의한 일본열도에서 최초로 회청색경질토기가 제작된다.

한편 3~4세기 가야 전기 중심국인 금관가야의 왕묘역인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종래 구야국의 왕묘역인 양동리고분군에서 부장되던 북부 규슈(九州)산 광형동모와 방제경을 대신하여 새롭게 파형동기(波形銅器)가 부장된 방패(盾), 벽옥제석제품(碧玉製石製品), 옥장(玉杖), 통형동기(筒形銅器) 등 기나이(畿內)계 문물이 부장된다.

이는 구야국이 철을 매개로 선사시대 이래 오랫동안 일본열도측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 규슈지역과 교섭하여 왔으나, 그 후 금관가야가 일본열도 중심부인 기나이지역과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해지역의 문물이 일본열도에 수입되고, 이제까지 수입되지 않던 기나이(畿內)지역의 문물이 대성동고분군에 수입되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열도 속의 금관가야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수입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4세기 뚜렷한 토기의 양식적 특징과 분포권을 형성한 정치체가 금관가야와 함께 아라가야인 것은 양자가 가야 전기의 중심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특히 아라가야 양식 토기의 광역 분포권으로 유추되는 관계망은 아라가야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전기에 양대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시코쿠(四國)지역에서 아라

가야 공인에 의해 초기 스에키가 생산되고 더욱이 서일본지역에서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것에서 일본 열도 출토 아라가야 양식 토기를 통하여 일본열도 속의 아라가야 문화와 그 이입 배경에 대해 접근하고자한다.

5세기 전반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를 교체하듯 소가야양식 토기가 동남해안과 황강유역, 남강 중·상류역까지 분포권이 확대된다. 이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서 소가야가 일시적으로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 소가야양식 토기는 광양시 칠성리유적, 광주시 동림동유적, 서울시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칠성리유적과 동림동유적과 풍납토성에 인접한 몽촌토성에서 일본열도산 스에키가 출토되어 소가야세력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기반으로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 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상정한다. 즉 소가야세력은 남강 중류역의 산청군 옥산리·묵곡리유적 출토 백제문물과 서울시 풍납토성의 소가야양식 토기 및 몽촌토성의 스에키로 볼 때, 함안세력을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를 중계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근래 에히메현(愛媛縣) 미나미이찌바구미(南市場組)요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서 일본열도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를 통하여 일본열도의 소가야 문화와 그 이입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5세기 후반 대가야 양식 토기가 황강 수계, 남강 중·상류역, 금강상류역, 섬진강 수계, 동남해안, 일본열도에 분포하게 된다. 이는 아라가야와 소가야가 활동하였던 관계망을 고령세력이 새로이 장악함으로써 4세기 까지 내륙의 소국에 불과했던 대가야가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이시기 일본열도에는 5세기 전반에 이입되던 신라산 문물을 대신하여 대가야산 금제, 금동제 장신구, 금동제 마구, 철기 등이 이입된다.

이제까지 대가야 발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합천 야로지역 철산의 개발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필자는 국내의 자료만으로 그 과정과 배경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가야의 영역 확장 과정이 섬진강수계와 남해안을 지향하는 것과 5세기 중엽 이래 일본열도 각지에 대가야문물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종래 내륙에 위치하여 후진국으로 파악되어온 대가야상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가야의 성장과정을 한반도의 자료뿐만 아니라 가야와 왜의 교류를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이제까지 필자가 주목해 온 대가야에 의한 섬진강로의 확보에 따른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내용으로 볼 때 대가야영역으로 파악되는 소위 임나사현(任那四縣)의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진출에 의한 남해안의 제해권 장악을 통하여 대가야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열도의 고분시대 중기인 5세기 후반에 이입된 대가야문물의 분석을 통하여 대가야와 왜의 관계, 대가야권역의 성립시기와 그 형성배경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일본열도의 이입문물 대부분이 대가야산임을 밝히고 이제까지 문헌사료로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가야와 왜의 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한다. 대가야권역의 성립시기에 대해 특히 대가야산 문물이 일본열도에 이입되는 것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가야권역의 성립배경에 대해서는 대가야의 섬진강로의 확보에 따른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관련하여, 남해안 진출에 따른 제해권의 장악을 통하여 접근한다. 나아가 대가야문화가 일본열도의 문명화에 끼친 영향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본열도 출토 가야 문물

1. 토기

1) 금관가야양식

기후현(岐阜縣) 아쇼비즈카(遊塚)고분은 4세기 후엽에 조성된 전장 80m의 대형 전방후원분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파수부단경호(把手附短頸壺)의 개(蓋)는 일찍부터 부산시 화명동7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定森秀夫, 1982 申敬澈, 1983). 이 토기는 아쇼비즈카고분의 철제 농공구와 함께 금관가야에서 수입된 것이다. 인접한 전장 82m의 대형 전방후원분인 기후현 요로이즈카(鎧塚)고분에서 채집된 통형기대(筒形器臺)는 4세기 후엽의 김해시 대성동11호분 출토품에서 유래가 확인되고, 이 고분군에서 토우의 부착 예가 보이는 점으로 보아 김해지역산으로 파악된다. 또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전장 110m의 대형 전방후원분인 쇼린산(松林山)고분에 바로 접한 신메이(神明)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종래 초기 스에키(須惠器)로 파악(鈴木敏則, 1999)되어왔으나 황갈색의 색조, 기형과 토우가 부착된 점에서 역시 김해지역산으로 판단된다.

오사카부(大阪府) 구메다(久米田)고분의 고배형기대는 황갈색의 색조, 배신의 타래문, 집선문, 파상문의 구성과 각부의 즐치문(櫛齒文)을 세로로 나열하여 시문한 점 등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김해시 대성동1호분, 부산시 복천동31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나라현(奈良縣) 취락유적인 아마타미찌(山田道)유적 출토의 무개식고배는 김해,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외 절구연 고배로서 부산시 화명동2, 7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定森秀夫, 1994).

오사카부의 취락유적인 야오미나미(八尾南)유적 SE21출토 호(壺)는 구연부에 돌대를 돌리고 타날한 후 나선상침선을 돌린 것으로 복천동21, 22호분의 토기와 유사하다(米田敏幸, 1993). 이 형식의 호는 오사카부 오바데라(大庭寺)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스에키(須惠器) 공인의 출자 파악에도 단서를 제공한다.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시 서쪽 해안 사구(砂丘)상에 입지한 대규모 취락유적인 니시신마찌유적(西新町)유적과 오사카부 구호지(久寶寺)유적 출토 노형기대는 원삼국시대 후기의 신식 와질토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토기의 계통은 구호지유적에서 노형기대와 공반된 침저용이 부산시 노포동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고, 이 시기 일본열도에 수입된 문물의 대부분이 낙동강하류역산인 점에서 김해·부산지역으로 본다.

오사카부 오바데라(大庭寺)유적의 가마유구인 TG231, TG232호 출토 토기는 일본열도에서 지금까지 최고 형식으로 설명되었던 스에무라(陶畠) TK73형식보다 확실히 1단계 선행하는 초기 스에키(須惠器)로 평가된다(朴天秀, 1993). 즉 일본열도에서 최초로 회청색 경질토기를 생산하는 가마가 오사카 남부에서 조업을 개시한 것이다(그림 1). 이 유적에서는 여러 기종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그 가운데 특히 고배의 개는 가야지역 출토품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한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고배는 대각 투창의 형태에 따라 삼각형, 장방형, 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방형의 다투창 고배와 소형투창을 가진 통형 고배는 함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계통은 아라가야 양식에서 찾아진다. 또한 삼각형투창의 고배는 5세기대에는 소가야권에 분포하고 있으나 4세기대에는 함안지역에서도 분포하는 것에서 아라가야양식으로 본다.



〈그림 1〉 오사카부 오바데라유적 출토 토기

통형기대는 부산시 화명동7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고배형 기대는 배신의 문양이 대부분 파악되어, 이 유적의 초기 스에키(須惠器) 공인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TG232폐기장에서 출토된 고배형기대의 문양구성을 분석해 보면, 무문(1), 격자문(2), 격자문+거치문(3), 결승문(2), 파상문+거치문(11), 파상문(10)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자문, 거치문, 결승문을 복합한 문양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롭게 파상문이 시문된 기대가 출현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 조합은 복천동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 가운데에는 복천동10·11호분 출토의 '산' 자형 변형파상문을 가진 것이 확인된다.

오바데라유적은 폐기장의 규모가 크고 수백 개체의 대용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조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대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朴天秀, 1998). 오바데라유적 출토 초기 스에키는 수장묘에 사용되는 제기인 기대류는 김해·부산지역에서, 고배 등은 함안 등의 경남 서부 지역에 출자를 가진 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아라가야양식

오사카부 규호지유적에서 약 500m 떨어진 가미(加美)1호묘 출토 승석문호(繩席文壺)는 와질토기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제작된 토기이다. 이 토기는 동부에 함몰흔이 있고 구연부가 타원형인 점에서 횡치 소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가미1호묘 출토 토기는 이러한 기법은 이 시기 함안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점에서 아라가야 양식 토기로 본다.

나카사키현(長崎縣) 쓰시마(對馬島)의 해안에 입지하는 석관묘인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고분에서 출토된 승석문양이부호(繩席文兩耳附壺)는 직립하는 구연부를 가지고 저면에 타원형의 선각이 있다. 이 토기는 발견 당시 백제토기로 파악(小田富士雄, 1978)되어 왔으나 함안지역산 토기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이 형식의 호가 도항리고분군을 비롯한 함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하고 있고 이제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저면의 선각은 이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예새기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토기는 3세기 제2/4분기 전후의 함안지역산으로 판단된다(그림 2).

후쿠오카현(福岡縣) 히가시시모타(東下田)유적에서도 함안지역산으로 보이는 4세기대의 승석문타날호(繩



〈그림 2〉 3세기 아라가야양식 토기와 관련자료(1. 다이쇼군야마고분, 2. 도항리고분군출토품)

席文打捺壺)가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저면에 배모양으로 파악되어온 선각이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각은 함안지역에서 확인되는 반월형의 예새기호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형식인 나가사키현의 아사히야마(朝日山)고분, 미네(三根)유적, 세토바루(瀬戸原)유적,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유적, 하루노쓰지(原の辻)유적, 후쿠오카현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 시마네현(島根縣) 가미나가하마(上長浜)패총, 돗토리현(鳥取縣) 아오키이나바(青木稻場)유적 출토 승석문양이부타날호(繩席文兩耳附打捺壺)도 4세기대의 아라가야양식 토기이다.

5세기에도 일본열도에는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이입된다. 나라현(奈良縣) 시죠오타나카(四條大田中)유적에서는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琴), 양산형 목제품 등과 함께 소형 투공이 천공된 함안지역산 소형 기대가 시루, 심발형 토기와 같은 한식계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나라현 신토(新堂)유적에서는 유로에서 화염형투창고배 2점, 원통형배 1점이 송풍관, 노재(爐滓), 철재(鐵滓), 시루 등의 한식계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에히메현(愛媛縣)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 분구 출토품은 고배형기대, 통형고배, 삼각투창고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통형기대의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기대와 고배의 형식으로 볼 때 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루카타니2호분 고배형기대는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전형적인 아라가야양식의 기대이다. 고배는 원형투공이 뚫린 통형고배와 삼각투창고배가 있는데, 전자는 아라가야양식의 표지적인 기종이며 후자의 삼각형 투창의 고배도 유사한 것이 함안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양자 모두 아라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고분에서 출토된 나가사키현 에비스야마(恵比須山)고분 출토품과 유사한 소형기대와 광구소호는 영남지역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으나, 함안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공반된 기종이 이 지역산인 점에서 아라가야양식으로 본다. 또 4세기 말을 전후하여 이입된 에히메현 후나카타니(船ヶ谷)유적 출토 2점의 소형 통형기대는 기형과 화염형 투창의 형태로 볼 때 함안지역산으로 파악되어 이 시기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반입된 것을 알 수 있다(朴天秀, 2004).

나라현 미나미야마(南山)4호분의 기마인물형토기는 동일한 형식의 이양선수집 경주박물관 소장품이 김해지역 출토품으로 추정되어 이 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이 토기는 각부형태와 능형의 소

형 투공과 공반된 소형 통형 기대와 동일한 형식이 합천군 저포리A지구 47호분 등에서 아라가야양식의 고배, 고배형기대와 함께 출토되고 있어 아라가야양식일 가능성이 크다. 나라현(奈良縣) 후루(布留)유적의 화염형투창고배는 일찍부터 아라가야양식으로 파악되어 왔다. 나라현(奈良縣) 신도(新堂)유적 출토 2점의 화염형투창고배와 1점의 사격자문통형배는 투창과 문양으로 볼 때 함안지역산으로 본다.

영남지역 전역에서 분포하는 파수부단경호는 그 계통의 구별이 어려우나 투공의 형태와 소성상태로 볼 때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쿠와바루(クワバル)고분,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유적, 후쿠오카현 미쿠모(三雲)유적, 히로시마현(廣島縣) 이케노우찌(池の内)2호분, 스나시리(砂走)유적 출토품은 아라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쿠모(三雲)유적에서는 아라가야양식의 세승석문타날호가 공반되었다. 그리고 오사카부(大阪府) 노나카(野中)고분 출토품 가운데 동체에 사격자문을 시문한 3점의 파수부단경호는 김해지역산에 비해 소형인 점, 자연유의 색조, 각부의 능형투공 등으로 볼 때 아라가야양식으로 본다.

오이타현(大分縣) 시모고우리(下郡)유적 출토 고배형기대는 삼각형 투창과 각부의 크기가 배신보다 비교적 작은 점에서 아라가야양식으로, 타래문의 폭이 비교적 넓은 점에서 산청지역과 같은 남강중유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양식의 통형 각부에 능형 혹은 원형의 투공을 가진 통형 고배는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宮山)요, 미타니사부로이케(三谷三郎池)요, 오사카부 오바데라(大庭寺)요 등의 초기 스에키요에서 발견되었다. 종래 필자는 가가와현 미야야마(宮山)요 공인의 계통을 함안계로 추정(朴天秀, 1993)한 바 있는데, 이후 같은 시코쿠(四國)지방의 에히메현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과 후나카타니(船ヶ谷)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쿠스미(楠見)유적 등 통형 각부에 능형의 소투공을 가진 통형고배도 아라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3) 소가야양식

오사카부(大阪府) 노나카(野中)고분 출토품 중 파상문이 시문된 대부단경호는 근래 남강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소가야 양식으로 파악된다.

나가사키현 에비스야마2호묘, 고후노사에(コフノサエ)유적, 도토고야마(トウトゴ山)유적, 미시마(箕島)고분군, 오이타현(大分縣) 후나오카야마(船岡山)유적 출토 삼각형투창고배는 소가야 양식으로 경남서부에서 반입된 것이다(趙榮濟, 1990).



〈그림 3〉 후쿠오카현 이케노우에고분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



5세기 전엽 후쿠오카현(福岡縣) 고테라(古寺)고분군,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수평구연호, 고배형기대, 유공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고배의 삼각투창, 호의 수평구연에 가까운 구연부 처리와 동하부의 타날, 유공광구소호의 경부 돌대와 고배형기대의 파상문 형태 등으로 보아 소가야양식 토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토기는 형식과 기종의 구성에서 소가야 양식으로 판단되나 세부형태가 다른 점에서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요산으로 파악된다(그림 3). 그런데 오바데라(大庭寺)유적과 달리 소가야양식과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현재 확인된 자료가 1세대 공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오사카부 스에무라(陶邑)TK73형식과 같이 2세대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장차 아사쿠라(朝倉)지역을 포함한 규슈지역에서 오바데라 유적과 같은 조업 개시기 가마의 발견이 기대된다.

사가현 스즈쿠마유적의 ST001·002고분 출토 소가야양식의 유공광구소호도 태토분석 결과 아사쿠라산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초기 스에키는 당시 규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가야 지역의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가현 이리에나이코유적과 후쿠오카현 요시타케 유적 출토 일단장방형투창고배는 대각 하위에 1조의 돌대를 돌린 형식으로, 고성 등 소가야권에서 반입된 것이다.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고분 출토 유공광구소호는 경부에 돌대를 돌린 것으로 최근 고성군 내산리고분군과 송학동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소가야양식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리에나이코유적과 요시타케유적, 모노미야구라고분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대가야양식 토기와 공반되거나 인접하여 출토되어 흥미롭다.

4) 대가야 양식

에히메현 기노모토고분 출토 유개식장경호는 에히메현 가라코다이80지점에서 출토 고배와 함께 5세기 중엽에 이입된 것이다. 오사카부 니시코야마고분에서도 같은 시기의 유개장경호가 출토되었다. 효고현 군계유적의 개배는 온돌상의 부뚜막 유구와 함께 확인되어 5세기 후엽 대가야지역의 이주민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야마시 후쿠이고분과 후쿠오카현 요시타케유적 출토 장경호도 같은 시기의 것이다.

6세기대의 대가야양식 토기는 후쿠오카현 요시타케유적·이케우라고분·오니노마쿠라(鬼の枕)고분, 사가현도쓰케C유적ST008고분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고분, 에히메현 하리마쓰카고분·도조고분·시로카타니고분, 이세야마오쓰카고분, 오사카부 우에마찌유적, 시가현 이리에나이코유적, 기후현 곤켄야마유적·가미마찌히사나카유적, 시마네현 모리카소네고분, 아마카타현 히가시카나이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후쿠오카현 요시타케유적과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고분에서는 각각 대가야산의 금동제 용문환두대도와 금제 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2. 철기

1) 철정

일본열도 고분시대 전기의 판상철부(板狀鐵斧)는 정형화된 철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농공구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철소재로서의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판상철부(板狀鐵斧)는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며, 교토부(京都府) 쓰바이오즈카(椿井大塚山)고분, 후쿠오카현(福岡縣)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 후쿠오카현(福岡縣) 하나소계(花聲)고분, 오카야마현(岡山縣) 비젠구루마즈카(備前車塚)고분, 오사카부(大阪府) 마나이(眞名井)고분, 니와토리즈카(庭鳥塚)고분, 교토부(京都府) 죠호지미나미바라(長法寺南原)고분, 나라현(奈良縣) 이케노우찌(池ノ内) 6 호분, 아이찌(愛知縣) 히가시노미야(東之宮)고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신토오즈카(眞土大塚山)고분, 군마현(群馬縣) 마에바시텐진야마(前橋天神山)고분,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이즈오쓰카야마(會津大塚山)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판상철부의 기원은 창원시 다호리1호묘 출토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열도 고분시대 전기의 판상철부는 3세기중엽에 조영된 김해시 대성동29호분에서 유사한 형식의 것이 다수 출토되었고, 나라현 이케노우찌 6 호묘와 후쿠시마현 아이즈오쓰카야마고분에서 금관가야산 유적대상



〈그림 4〉 4세기 후반 일본열도의 금관가야산 철정

1. 김해시대성동2호분, 2. 부산시북천동54호분, 3. 후쿠오카현 오키노시마유적, 4. 후쿠오카현 와리바다케고분, 5. 오이타현 시모야마고분, 6. 효고현 교자즈카고분, 7. 와카야마현 마루야마고분

철부(有肩袋狀鐵斧)가 함께 출토된 점에서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판상철부는 비실용화되면서 판상철부형 철정으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철정으로 변화한다.

판상철부형 철정은 신라의 경주 월성로가 29호분, 구어리1호 목곽묘, 가야의 부산 복천동 38호분, 46호분 출토품으로 볼 때 양자 모두 인부(刃部)가 커지고 날이 없어진 같은 형태이다. 그 후 철정으로 변화하면서 신라, 가야 철정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며 분화한다.

4세기 후엽 금관가야의 철정은 김해시 대성동 1, 2, 3호분, 부산시 복천동 54호분, 김해시 칠산동20호분 출토품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양단부의 형태가 직선적이고 양 측면이 요철이 없는 대칭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4세기 후엽 효고현(兵庫縣) 교자즈카(行者塚)고분, 교토부(京都府) 야하타오즈카(八幡大塚)고분, 와카야마현(和歌山縣) 마루야마(丸山)고분 출토 철정은 전자의 금관가야산과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이 시기 다른 철제품과 같이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 이는 교토부(京都府) 야하타오즈카(八幡大塚)고분에서 금관가야계의 능형(菱形)철촉(우병철, 2004)이 금관가야산 철정, 복발부주(覆鉢附冑)와 함께 출토된 점에서도 그러하다.

2) 철제 농공구

철병부수부(鐵柄附手斧)는 기후현(岐阜縣)의 히루이오즈카(晝飯大塚)고분, 아쇼비즈카(遊塚)고분, 나라현(奈良縣) 우에도노(上殿)고분, 시카현(滋賀縣)의 기타다니(北谷)11호분, 산노야마(山王山)고분, 야마나시현(山梨縣) 오마루야마(大丸山)고분, 오사카부(大阪府) 오즈카야마(大塚山)고분에서 출토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4세기대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창녕군 교동3호분, 삼척시 갈야산 적석총, 대구시 달서고분, 경주시 황오동5호분 등 5세기 전반의 신라 지역의 고분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래서 철병부수부의 계통은 공반유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후현 아쇼비즈카고분에서는 금관가야산 토기가 공반되고, 나라현 우에도노고분에서는 근래 김해지역에서 집중 출토되는 통형동기가 함께 공반된 점에서 금관가야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열도 출토 유견대상철부는 영남지역에서 널리 분포하고 있으나, 대성동 29호묘, 13호묘, 18호묘출토품 등과 유사한 형식이고 오사카부 시킨잔고분, 나라현 다니구찌(タニグチ)1호분, 이케노우찌(池ノ内)5호분, 오카야마현 가나구라야마고분, 히로시마현 가메야마고분에서 통형동기가 공반되는 점에서 금관가야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나라현 신야마고분, 오사카부 노나카고분, 기후현 아쇼비즈카고분, 미에현 이시아마고분, 군마현 오후지야마고분, 도쿄도 노게오즈카고분, 이바라기현 가가미즈카고분 등에서는 석제모조품으로 제작되어 판상철부형 모조품과 함께 제사용의 의기(儀器)로 부장된다.

U자형 삽날은 4세기대의 후쿠오카현이나바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대성동2호묘에서 부장되고 있어 일본열도의 4세기대 출토품은 다른 철제품과 함께 김해지역 출토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비는 교토부 이마바야시5호묘, 시마네현 니시타니16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시기로 볼 때 이마바야시5호묘 출토품은 김해시 양동리 212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3. 무기

1) 철촉

쿠오카현(福岡縣) 쓰코쇼카케(津古掛)고분, 교토부(京都府) 쓰바이오즈카(樅井大塚山)고분,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이즈오쓰카야마(会津大塚山)고분 출토 정각식(定角式)철촉은 김해시 대성동 29호분 출토품과 같은 금관가야계 철촉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 형식이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이러한 고분에는 착두(鑿頭)형철촉과 판상철부와 같은 금관가야산 문물이 공반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김해시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금관가야계의 능형(菱形)철촉은 교토부 야하타 오즈카고분에서는 금관가야산 철정, 복발부주와 함께 출토되었다. 교토부의 가와라타니고분과 소노베카이찌고분에서 방형판 혁결판갑과 함께 출토되었다. 교토부 모토이나리고분과 후쿠오카현 료지고분 3호석실, 오카야마현 가나쿠라야마고분, 효고현 텐보야마고분 등에서는 한반도산 철제품과 함께 출토되었다. 가나쿠라야마고분에서는 금관가야계의 통형동기와 함께 출토되어 이 형식 철촉의 계통을 추정할 수 있다. 아마쿠찌현 덴진야마1호분에서는 능형철촉이 도자형과 착두형철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김해시 구지로18호분과 부산시 노포동31호분 등 출토 천공(穿孔)된 유엽(柳葉)형 철촉은 후쿠오카현 죠시즈카(銚子塚)고분 등에서 확인된다.

나가노현 네즈카유적과 교토부 히루즈카고분출토 와권문장식부철검(渦卷文裝飾附鐵劍)은 2세기 후엽의 김해시 양동리212호분 출토품 등과 유사하다.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출토 도자형장경촉(刀子形長頸鏃)은 공반된 문물이 대가야산인 점에서 대가야에서 그 계통을 구할 수 있다. 오사카부 나가모찌야마고분 출토 도자형 장경촉도 대가야산 검릉형행엽, f자형판부비, 내만타원형판비와 공반된 것에서 그러하다. 시즈오카현 다다오즈카고분에서도 대가야산 f자형판부비와 함께 도자형장경촉이 공반된다. 또한 교토부 우지후타코야마 남분에서는 대가야산 철모, f자형판비, 검릉형행엽과 함께 도자형장경촉이 공반된다. 그래서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출현하는 도자형철촉은 공반유물로 볼 때 대가야에 그 계통이 구해진다.

2) 철모

히로시마현 가메야마고분 출토 연미형(燕尾形) 철모는 후쿠오카현(福岡縣) 료지(老司)고분 3호석실에서 도 금관가야산 능형철촉과 함께 철모가 공반되는 것에서 금관가야산으로 추정된다.

5세기 후반 돌연 대부단면 다각형철모가 이입된다. 대부단면 다각형철모는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고분·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교토부 우지후타코야마(宇治二子山)남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다각형철모는 백제지역에도 분포하나,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품을 비롯한 대가야권에도 널리 사용되고 이 형식 철모와 함께 이입된 한반도문물의 대부분이 대가야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가야에 그 계통을 찾을 수 있다.





3)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그림 5)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는 이제까지 고령지역에서는 지산동구 39호분에서 1점이 출토된 것에 불과하여 다수의 용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된 합천군 옥전고분군 환두대도와 그 외 국내외 소장 환두대도는 백제산 또는 재지산의 가능성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옥전M3호분 출토 대도는 무녕왕릉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와는 달리 환두내 용봉문 장식을 별주(別鑄)하여 부착한 점에서 백제산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산동44호분에서 옥전M3호분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의 초중금구(靛中金具)와 유사한 파상문을 장식한 금판이 재보고 과정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지산동44호분에 용봉문환두대도가 부장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옥전고분군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고분군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에 보이는 반육조용문의 문양이 일본열도 5세기 후엽의 교토부 고쿠즈카고분, 후쿠이현 니시즈카고분,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용문대장식구에서 확인되는 점이다. 이러한 고분의 용문대장식구는 공반된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 철제무기와 같은 대가야문물과 함께 고령지역에서 제작되어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가야권역내 용봉문환두대도는 옥전 M3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의 대도가 지산동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일본열도에 이입된 동일한 의장의 용문대장식구가 고령 지역산으로 파악되는 것에서 이 지역에서 제작되어 분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근래 확인된 산청 생초M13호분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이다. 왜냐하면 이 환두대도는 지산동44호분 출토 금동제삽금구에 장식된 유리옥이 환두에 감입된 점에서 고령지역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가야산 환두대도의 특징은 환두내 용봉문 장식을 일체식으로 제작한 백제와는 달리 별주하여 부착한 점에 이외에도 환두를 백제산 대도와는 달리 도금(鍍金)하지 않고 금피(金被)로 장식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환두내 장식이 주로 용문에 한정된 백제와는 달리 용문과 봉황문, 봉황문, 쌍용문으로 장식하는 점, 병두금구(柄頭金具)와 초구금구(靛口金具)의 문양이 용문인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환두(環頭) 내연(內緣)을 각목문(刻目文)으로 장식한 점을 들 수 있다. 환두 내연의 각목문은 용의 배를 표현한 것으로 병두금구와 초구금구가 무문인 경우에도 대가야산 환두대도를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와 함께 환두내 용봉문 장식을 일체식으로 제작하여 종래 백제산으로 보아온 일본열도 출토품의 제작지가 대가야산임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백제 대도의 영향을 받아 병두금구와 초구금구의 문양이 구갑(龜甲)문내에 봉황을 시문하는 것으로 변한 지산동구39호분 출토품과 구 오구라小倉 반출품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환두 내연에 각목문이 시문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신라권역의 창녕군 교동11호분, 경주시 식리총, 호우총 출토 용봉문환두대도는 고령지역산으로 파악된다. 식리총에서는 대가야산 검릉형행엽이 공반되고, 이 시기 교동고분군에는 대가야산 수식부이식이 이입되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열도의 후쿠오카현(福岡縣) 요시타케(吉武)S-9호분, 효고현(兵庫縣) 출토품,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시가현(滋賀縣) 가모이나리아마(鴨稻荷山)고분, 사이타마현(埼玉縣) 소군야마(將軍山)고분 출토품은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대가야산 환두대도로 본다.

그 외 국내외 소장 출토지 불명의 용봉문환두대도 가운데 삼성미술관 소장품 등 30점 이상이 대가야산으로 추정된다.





〈그림 5〉 대가야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1. 창녕군 교동10호, 2. 고령군 지산동36호, 3. 합천군 옥전M6호, 4~7. 합천군 옥전M3호, 8. 산청군 생초M13호, 9. 경주시 호우총, 10. 경주 식리총, 11. 나주시 신촌리9호 을관, 12. 함안군 도항리54호, 13~14. 합천군 옥전M4호

특히 종래 제작지를 알 수 없었던 전 오사카부 모즈(百舌鳥)고분군의 전 닌토쿠릉(仁德陵)고분 출토품으로 전하는 보스톤 미술관 소장품은 환두 내연에 각목문이 시문되어있고 병두금구(柄頭金具)와 초구금구(靛口金具)의 문양 구획을 능삼문(稜杉文)으로 장식한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또한 다이센고분 출토품은 병두금구와 초구금구의 용문이 퇴화하여 그 제작시기가 6세기 중엽으로 파악되어 다이센고분 출토품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이 고분군에 용봉문환두대도를 부장할 수 있는 유력 수장묘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모즈고분군 출토품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이 환두대도는 당시 고령지역에서 도굴된 환두대도가 일본으로 널리 팔려나간 점에서 고령 출토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야자키현 아마노가미고분 출토 삼엽환두대도도 병부의 어린문(魚鱗文)이 전형적인 신라산과 다른 반원형인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 파악된다.

6세기 전반 일본열도의 후쿠이현 마루야마고분, 나라현 다마키야마1호분 출토 삼엽문 환두대도는 그 계통이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삼엽문 장식과 어린문의 형태가 전형적인 삼엽문대도와 다른 점에서 신라의 환두대도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양 고분 출토품은 대가야산 오구라 반출 용문환두대도와 원두대도, 사이타마현 쇼군야마고분 환두대도에 보이는 연주문이 시문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출토 대가야 문물과 국내외에 소장된 대가야 유물에 대한 조사 결과 대가야산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는 국내발굴품 13점을 비롯하여 일본 출토품 5점, 국내외 소장품(국내 11점, 일본 16점, 미국 1점, 프랑스 1점) 29점, 도합 52점을 확인하였다.

4. 무구

1) 성시구

고분시대 전기에는 가죽 화살통(채靮)이 성시구가 사용되었으나, 고분시대 중기가 되면 이를 대신하여 호록(胡籛)이 출현하여 주류를 이룬다.

5세기 전반에는 U자형 전면식금구를 가진 신라산 성시구가 일본열도에 이입되나 5세기 후반에는 돌연 화형, 연속 산형 장식을 가진 대륜상(帶輪狀)의 식금구를 가진 성시구가 출현한다.

대륜상의 식금구를 가진 성시구는 고령군 지산동39호분, 합천군 옥전M4호분, 함양군 백천리1호분에서 출토되어 대가야형으로 설정된다. 대가야형 성시구는 5세기 후반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오사카부 시치노쓰보七ノ坪고분, 후쿠오카현 오키노시7호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전면 식금구가 U자형인 성시구 가운데 오카야마현 덴구야마출토품은 병대가 조밀한 신라산과는 달리 조밀하지 않은 점이 고령군 지산동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하고 공반된 검릉형행엽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2) 판갑

4세기대 판갑은 대수장묘인 아마나시현 오마루야마고분, 오사카부 시킨잔고분 등에서 출토된 종장판혁결판갑(縱長板革結板甲)이다. 신경철은 일본열도 출토 종장판혁결판갑에 대하여 김해시 대성동고분과 부산시 북천동고분군 출토 예를 지적하며 양자간의 차이점은 인정되지만 그 계통을 금관가야 지역에서 구하였다(申敬澈, 1993). 이는 시킨잔(紫金山)고분에서 금관가야산 통형동기(筒形銅器)와 유견대상철부(有肩袋狀鐵斧)가 공반되었고, 오마루야마(大丸山)고분에서는 철병부수부(鐵柄附手斧)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이 높다.

종장판혁철판갑 뿐만 아니라 시가현(滋賀縣) 아쓰지효단야마(安土瓢簞山)고분, 나라현(奈良縣)의 우에도



노(上殿)고분,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500호분, 다니구찌(タニグチ)1호분 등에서 출토된 방형관혁결판갑(方形板革結板甲)에 대해서도 복천동64호분 출토 예를 지적하면서 그 계통을 김해, 부산지역에서 찾는 견해가 제시되었다(橋本達也, 1998). 방형관혁결판갑은 아쯔지효단야마(安土瓢簞山)고분, 니이자와센즈카(新況千塚)500호분, 타니구찌(タニグチ)1호분에서 통형동기와 공반되고, 우에도노(上殿)고분에서 철병부수부가 함께 부장되는 점에서 그 계통이 금관가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후반 대가야에서는 합천군 옥전70호분과 오구라 반출 전 경상남도 출토품에서 보이는 폭이 넓은 종장지판을 가진 복발부주가 새롭게 출현한다.

남원군 월산리M1-A분의 복발부주에서 보이는 복발을 종장지판과 결합하는 타원형의 중간금구는 복발과 종장지판을 그대로 연결해서 엮었던 복발부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금구는 관모계주(冠帽系冑)의 관모상복발(冠帽狀伏鉢)과 소찰(小札) 또는 종장지판(縱長地板)을 연결하는 중간 금구로 발전한다. 오구라반출 전 경상남도 출토품은 폭이 넓은 종장지판에 이 중간금구를 가진 복발부주로 전형적인 대가야형 주로 본다. 그리고 관모계주와 그 계열의 것으로 생각되는 돌기부주는 대가야권에서 복발부주를 개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합천군 옥전M3호분·반계제가A호분에서 소찰과 폭이 넓은 방형지판을 가진 관모계주가 출토되었다. 같은 형식의 금동제 주가 고성군 송학동1호분A-호묘에서 출토되었다. 돌기부주는 오구라 반출의 전 창녕 출토품이 있다. 한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금동제 주는 타원형의 중간금구와 방형의 지판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오사카부 미나미즈카(南塚)고분, 지바현 긴네이즈카(金鈴塚) 등에 보이는 종장광지판(縱長廣地板)의 층각부주는 합천군 옥전70호분, 오구라 반출 전 경상남도 출토품과 같은 한반도산 주의 영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마현 간논야마(觀音山)고분과 후쿠시마현(福島縣) 이케노우에(池の上)1호분의 돌기부주는 합천군 반계제가A호분 관모 주의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근래 남원시 월산리M5호분에서 돌기부가 출토된 점에서 증명되었다.

5. 장신구

고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신체를 장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특히 금제, 금동제의 장신구는 착장자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모, 이식, 대장식구를 제작하여 일본열도에 수출하였다. 당시 왜가 대가야산 장신구를 수용한 것은 대가야와 왜와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1) 관식

대가야의 관은 신라관과 백제관과는 달리 보주형(寶珠形) 입식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32호분 금동제 관은 대륜의 중위에 큼지막한 광배형 입식이 부착된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입식의 정부(頂部)는 보주형을 띠

며 소형 곁가지가 따로 부착되어 있다. 대륜에는 상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 파상점열문이 시문되어 있고 6개의 원두정으로 입식이 고정되어 있다. 입식 중상위에 영락이 달렸지만 대륜에는 없다. 입식에는 횡선·X선 교차 문양이 베풀어져 있다. 30호분 2곽 출토 금동제 관은 소형이다. 대륜 위쪽에 보주형의 입식 3개가 각각 1개씩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같은 간격으로 원형 영락 4개가 달려 있다. 대륜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축조기법으로 파상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두 점의 관은 오구라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반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금관과 삼성미술관 소장 금관이 대가야산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즉 양 금관에는 신라·백제 관에 보이지 않는 보주형 입식으로 장식한 오구라타케노스케 반출 금관은 중앙에 작은 1개의 보주형 입식을 중앙에 세우고 그 좌우에는 난초처럼 생긴 긴 입식을 반대방향으로 각 2개씩 세워 측면을 장식하였다. 대륜과 입식을 파상점열문과 영락으로 장식하였다.

삼성미술관 소장 금관은 4개의 보주형 입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며 전면을 세워 장식하였다. 대륜과 입식을 점열문, 격자 점열문과 영락으로 장식하였다.

대륜에는 경옥제 곡옥이 일정 간격으로 전면에 돌아가며 부착되어 있다. 곡옥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관에 신라관의 영향이 보이는 것에서 당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야 관은 전면을 장식하는 것에서 신라관의 영향을 받아 대륜에 크기가 비슷한 입식 서너 개를 세워 전면을 장식하는 것으로 파상열점문에서 열점문으로 문양이 변하고 곡옥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한다. 따라서 지산동 30호분 금동관 → 지산동 32호분 금동관 → 오구라반출 금관 → 삼성미술관소장 금관 순으로 편년된다(그림 6).



〈그림 6〉 대가야 금제 금동제 관(1. 지산동30호분 2곽 출토 금동관, 2. 지산동32호분 출토 금동관, 3. 오구라 컬렉션 금관, 4. 삼성미술관 Leeum 금관)



〈그림 7〉 대가야 금제 수식부이식(1. 합천군 옥전28호분, 2. 고령군 지산동1-40호석곽, 3. 장수군 봉서리고분군, 4. 삼성미술관 Leeum, 5. 동경국립박물관)



후쿠이현 니혼마쓰야마고분, 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 출토 관은 액대식(額帶式)으로 중앙에 대형의 보주형장식을 가진 점, 사쿠라카오카고분 출토 관은 연변(緣邊)에 파상점렬문(波狀点列文)을 시문한 점과 중앙 돌기에 앵무새 부리형의 장식을 가진 점에서, 지산동32호분과 지산동30호분 출토 관을 조형으로 제작된 것이다. 도치키현(栃木縣) 구와(桑)57호분 출토 관도 반원형입식이 없으나 액대에서 직접 3개의 입식을 세우고 전방부만을 장식한 점에서 이들 관과 같은 계통이다. 도야마현 아사히나가야마(朝日長山)고분 출토 금동제의 관 모는 합천군 반계제가A호분 출토품과 유사하여 대가야산으로 본다.

2) 이식

일본열도 출토 금제 수식부이식(垂飾附耳飾) 가운데 특히 사슬형 연결금구와 공구체형 중간식을 조합한 이식은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출토품에서 그 계통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형식의 이식이 출토된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고분에 공반된 파수부유개완이 대가야양식 토기인 점에서 증명되었다.

대가야 이식은 공구체 중간식을 연결하고 그 아래 사슬모양의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심엽형, 원추형, 산치자형, 낙하산형, 삼익형, 공구체 등의 끝장식을 단 것이다. 초기에는 백제이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다가 대가야의 독자적인 이식으로 변화한다.

국내에서는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고령군 본관동고분군, 합천군 옥전고분군, 합천군 반계제고분군, 함양군 백천리고분군, 산청군 생초고분군, 산청군 평촌리고분군, 진주시 중앙동고분군, 창원시 다호리고분군, 남원시 월산리고분군, 장수군 봉서리고분군, 곡성군 방송리고분군, 순천시 운평리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그림 7).

5세기 후반 대가야산 금제, 은제 수식부이식의 특징은 사슬이 긴 장쇄식(長鎖式)인 점이다.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미야자키현(宮崎縣) 시모키타카타(下北方) 5호분, 효고현 미야야마(宮山)고분·간즈스카(カンス塚)고분, 나라현(奈良縣)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109호분,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오타니(大谷)고분, 후쿠이현 무카이야마(向山)1호분·덴진야마(天神山) 7호분·니시즈카(西塚)고분, 군마현(群馬縣) 겐자키나가토로니시(劍崎長瀬西)10호분, 지바현(千葉県) 아네자키후타코즈카(姉崎二子塚)고분, 기온오쓰카야마(祇園大塚山)고분 등 일본열도 전역에서 출토되었다.

6세기 전엽에도 대가야산 수식부이식은 사슬이 짧은 단쇄식(短鎖式)으로 산치자형 수식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후쿠오카현 히하이즈카고분·다치야마야마 8호분, 사가현 다마시마고분·류오키11호분,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고분·텐사야마고분·다이보고분, 나라현 와리즈카고분, 오사카부 이찌스카B7호분, 미에현 호코리구루마즈카고분, 나가노현 아제치1호분 등 일본열도 전역에 이입된다.

사가현 가모이나리아마고분 출토 이식은 무령왕릉과 송산리6호분 출토품과 같이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반구체 안에 유리옥이 감입된 중간식이 사용된 것으로 백제계로 지적되어 왔다(野上丈助, 1982). 그러나 카모이나리아마고분 출토 이식은 사슬로 된 연결금구와 수하식의 상하를 장식한 금립金粒은 대가야계 이식의 요소인 점에서 공반된 금동제 환두대도와 함께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그 외 구마모토현 시로카쓰지(城ヶ辻)6호분, 이시카와현(石川縣) 수이사카마루야마(吸坂丸山)5호분, 군마



현 마에후타코야마(前二子山)고분 등 출토 금제 소환이식도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출토품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본다.

3) 대장식구

5세기 후엽 일본열도에서는 교토부 고쿠즈카고분, 오사카부 나가모찌야마고분, 후쿠이현 니시즈카고분,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품과 같은 반육조의 용문대장식구가 출현한다. 오카야마현 우시부미차우스야마고분에서는 귀면문대장식구가 부장된다.

반육조 용문대장식구는 오구라반출품의 같은 형식 대장식구가 대가야권에서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고령군 지산동구39호분과 합천군 옥전M3호분에서 귀면문대장식구가 출토된 것에서 대가야에서 수입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오구라 반출 대장식구의 하부에 달린 구금구가 합천군 옥전M3호분 출토 검릉형행엽의 입문 금구 형태와 일치하며, 후쿠이현 니시즈카고분과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출토품의 금구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두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는 과관에 방울을 장식한 것으로 오구라반출품도 이와 같이 방울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대장식구를 부장한 고분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 철제 무기와 같은 대가야산 문물이 공반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 금동제 안교에 부착된 방울의 측면에 양이(兩耳)가 붙은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즉 교토부 고쿠즈카고분,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오카야마현 우시부미차우스야마고분 출토 대장식구에는 이와 같은 방울이 달려있는 점에서, 이 시기의 대장식구가 대가야산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일본열도 출토 반육조 용문 대장식구에는 능삼문(稜杉文)을 용문의 주연에 시문하고 있으며, 이 문양은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옥전M3호분 출토 반육조 용문 환두대도 용문의 구획에 주로 시문된다. 일본열도 출토 용문 대장식구는 옥전고분군 출토 환두대도와 반육조의 용문을 능삼문으로 구획하는 동일한 의장을 가진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6. 마와 마구

1) 마

말은 군용, 교통, 농업, 운반에 사용된 귀중한 자원이었으나 일본열도에서는 독자적인 말의 사육과 번식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5세기 일본열도에 말의 사육, 번식 기술과 말을 제어하고 장식하는 마구가 한반도로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기나이(畿内)에는 백제지역으로부터 말이 도입되나, 규슈지방과 동일본지방에는 대가야로부터 말이 도입되어 주목된다. 대가야권역에서는 고령군 지산동44호분과 합천군 반계제가A호분의 봉토상에서 마치(馬齒)가 출토되었다.

사슬과 금제구슬을 조합한 귀걸이가 출토되었다. 미야자키현 아오키(檜)1호분의 주구에 접한 야마사키(山

崎)우에노하루(上原)SC16수혈에서는 내만타원형경관부비를 비롯한 마구를 착장한 말이 출토되었다. 미야자키현 시마우찌島内지하식회혈1호분 주구상의 SK02출토 수혈에서는 f자형판비와 검릉형행엽이 착장된 한 마리분의 말이 출토되었다. 미야자키현의 말은 대가야산 마구와 공반된 것에서 대가야로부터 마사집단과 같이 이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에현(三重県) 오자토니시오키(大里西沖)유적SK105구덩이에서는 f자형자형경관부비와 검릉형행엽, 환형운주가 출토되어 말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대가야산 마구와 함께 출토된 말은 대가야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그림 8).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시고분군의 1, 2호분에 인접한 5세기 중엽의 13호 수혈에서는 철제 재갈이 말이빨 및 뼈의 일부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 말은 같은 유적에서 금제 수식부이식과 연질토기가 출토되어 대가야에서 마사집단과 함께 이식된 것으로 본다. 그 외 공반된 마구로 볼 때 대가야에서 이식된 것으로 보이는 말이 다음과 같은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나가노현의 모노미즈카고분, 미야가이토유적10, 64호수혈, 아라이하라2, 12호분, 차카라야마2, 9호분 등이다. 차카라야마9호분은 길이24m의 전방부가 짧은 가리비(帆立貝)형 전방후원분으로 주구 내에 6기의 수혈과 그 외 2기의 수혈에서 말이빨이 출토되어 최소 8마리의 말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야가이토유적64호 수혈에서는 f자형판비와 검릉형행엽, 환형운주,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아라이하라12호분은 길이36m의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주구 주변에서 확인된 수혈에서 f자형판비와 검릉형행엽이 착장된 한 마리분의 말이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나가노현의 말은 대가야산 마구와 공반된 것에서 대가야로부터 마사집단과 같이 대규모로 이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야가이토유적과 인접하는 전방후원분인 미조구찌노즈카(溝口の塚)고분에서는 이주민의 형질적 특성을 가진 인골과 함께 대가야의 특징적인 무기인 병부단면다각형 철모가 출토되어, 이 고분의 피장자는 마사집단을 통솔한 이주민 수장으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2) 마구

5세기 전반에는 신라산 마구가 이입되나, 5세기 후반에는 이입된 내만타원형경관부비, f자형경관부비와 검릉형행엽과 같은 새로운 마구가 이입된다.

이 시기 일본열도의 대표적인 마구는 오사카부 나가모찌야마고분 출토 철지금동장 내만타원형경관부비, f자형경관부비와 검릉형행엽, 안금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마구의 조합은 대가야권의 합천군 옥전M3호분에서 확인되어 대가야산으로 추정되어왔다. 그런데 지산동44호분에서 새로이 f자형경관부비가 확인되어 이와 같은 조합관계의 마구는 공반유물로 볼 때 고령지역에서 제작되어 대가야권역과 일본열도로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반 대가야의 마구는 내만타원형경관부비, f자형경관부비와 검릉형행엽, 인면문 마령, 안장은 중앙의 주빈(洲浜)과 그 좌우의 기금구(磯金具)를 분리하여 만든 분리안으로 병대(鋌帶)가 조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출토 금동제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관부비는 중국산으로 상정되어 온 장식성이 높은 마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구는 문양이외에는 그 계보가 중국과 연

결되지 않으며 또한 그 곳에서 실물이 출토된 바도 없다. 그런데 오타니고분과 후쿠이현 주젠노모리고분 출토 검릉형행엽은 방울을 단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영부검릉형행엽방울과 유사한 점에서 대가야에서 그 계통을 구할 수 있다. 더욱이 지산동44호분 출토 금동제 안고에 부착된 방울의 측면에 양이를 가진 동령은 주젠노모리고분 영부검릉형행엽,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f자형경판부비 등에서도 확인되어 흥미롭다. 따라서 양고분의 f자형경판부비와 검릉형행엽은 공반된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마구, 철제무기와 같은 다른 대가야문물과 함께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타니고분에서는 분리안, 인면문 마령, 마주와 같은 대가야산 마구가 공반된 것에서도 방증된다.

종래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의 대형화는 일본열도의 독자적인 변화로 파악되어 왔으나, 6세기 초로 편년되는 창원시 다호리B지구 1호석실분와 고성군 송학동1호분에서 대형화된 형식이 출토되어 그 변화가 가야지역과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송학동1호분에서는 1A-6호석곽에서 옥전M3호분에 후행하는 5세기 말 지산동44호분 단계의 대가야산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가 출토되고, 6세기 초 1A-1호석곽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식 변화한 대형의 대가야산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가 출토되기 때문이다. 쌍엽검릉형행엽도 종래 일본열도산으로 파악되어왔으나 송학동1호분에서 출토되는 것에서 그 초기 형식은 대가야



〈그림 8〉 미에현 오자토니시오키유적SK105유구 출토 대가야산 말과 마구



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 출토품을 비롯한 주조(鑄造) 영부행엽은 일본열도의 독자적인 마구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제작기법이 삼환령과 동일한 점, 가야지역 출토품으로 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오구라(小倉)반출품에 같은 형식의 행엽이 존재하는 점과 이 시기의 마구의 계통을 생각하면 대가야마구일 가능성도 상정된다. 또한 일본열도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는 복환식경판부비도 대가야 권역에 속하는 산청군 생초9호석곽묘 등에서 출토되는 것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마주는 마갑과 함께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마주는 천정부를 세장한 철판을 사용하여 좌우의 면복부(面覆部)를 결합한 유형과 천정부 전체를 한매의 철판으로 덮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김해시 대성동1호분과 두곡8호분, 함안군 마갑총에 부장되었으나 경주시 사라리 65호분과 옥전 M1, 35호분에서 신라산 문물과 공반되고, 부산시 북천동 10호분에서도 토기를 비롯한 신라문물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신라형으로 본다.

후자는 경주시 황남동 109호분 4곽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5세기 후반에는 함천군 옥전 M3호분, 옥전 28호분, 함안군 도항리8호분에서 확인되고 있어 대가야형으로 본다.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출토 마주는 미간판(眉間板) 폭이 넓은 1매의 판으로 된 것으로 대가야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다. 오타니고분에서는 대가야의 마구와 이식, 사이타마현 쇼군야마고분에서는 사행상철기와 같은 신라산 마구와 동완이 공반되는 것에서 전자가 대가야형, 후자가 신라형임을 보여준다.

Ⅲ. 금관가야와 왜

금관가야의 고지인 김해지역은 지금 낙동강 하구 바로 동안의 평야로 되어 있지만, 이는 20세기 초의 낙동강 제방공사의 결과로 지형이 변한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동여지도에도 지금의 칠산이 섬인 망산도로 표현되어 있고 그 주변이 모두 해수역으로 되어있는 점에서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넓은 만을 이루고 있는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을 이용한 교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하였다.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되었듯이 낙랑·대방군으로부터 서, 남해안을 거쳐 왜로 가는 항로상에서 한반도내 마지막 기착지였다. 말하자면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안을 동서로 잇고 영남 내륙과 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 교역로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겠다.

김해시 양동리 235호분 출토 북방계 동북, 양동리 322호분 출토 중국산 동정과 일본열도산 동모는 철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의 교역이 구야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전하는 것이 『삼국지』 위서 변진조의 “국으로부터 철을 산출한다. 한(韓), 예(濊), 왜(倭)가 모두 철을 구해 간다. 시장의 때 매에서도 모두 철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중국에서 전(錢)을 이용하는 것과 같으며 낙랑 대방에도 공급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와 함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대방군에서 왜로 가는 데에는 해안을 따라 수행하여 한국을



거쳐 혹은 동으로 그 북안의 구야한국으로 가는데 7천여리, 비로소 일해—海를 건너 천여리로 대마국에 도착한다”라 하여 대방군에서 남서해안을 거쳐 왜에 이르는 중계지점이 구야국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열도의 한반도 관련 최초의 기록이 『일본서기』 슈진65년조에 임나국 견사 기사인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4세기가 되면 중국산 거울과 북방계 동북의 부장이 쇠퇴하고 일본열도산 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는 낙랑 대방의 멸망을 계기로 교역상대가 일본열도로 집중하는 것에 기인한다. 더욱이 일본열도산 문물은 양동리고분군 이래 부장되던 규슈산 광형동모와 방제경이 사라지고, 나라와 오사카지역의 수장묘에서 발견되는 파형동기가 부착된 방패, 석제품 등 긴키계 문물이 주류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소재인 철정과 철제갑주, 마구는 일본열도로 이입되어 당시 그 중심지인 나라와 오사카지역의 수장묘에 부장된다.

특히 금관가야산 농공구뿐만 아니라 철소재로 사용된 고분시대 전기의 판상철부와 유견대상철부)有肩袋狀鐵斧)는 교토부 쓰바이오즈카야마고분, 후쿠오카현 니시신마찌유적, 오카야마현 비젠구루마즈카고분, 교토부 죠호지미나미바라고분, 아이찌현 히가시노미야고분, 가나가와현 진토오쓰카고분, 군마 마에바시텐진야마고분, 후쿠시마현 아이즈오쓰카야마고분 등 각지의 유력 수장묘에서 출토된다.

4세기 금관가야의 철정은 김해시 대성동1, 2, 3호분, 부산시 복천동54호분, 김해시 칠산동20호분 출토품에서 관찰되는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양단부의 형태가 직선을 이루며 양 측면이 요철이 없는 대칭적인 형태를 띤다. 4세기 후엽 효고현교자즈카고분, 교토부 야하타오즈카고분 출토 철정은 금관가야산과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다른 철제품과 같이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열도에 이입된 금관가야 문물은 먼저 오바테라유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새로운 토기인 회청색경질 토기를 제작하는 제도기술을 들 수 있다. 이는 금관가야 양식 토기를 제작하던 도공이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스에키라는 토기를 창출하였으며, 스에키를 계승한 오늘날 일본의 비젠야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기의 근원도 실은 이에서 구해진다. 그리고 오사카부 시킨잔고분 등에서 출토된 종장판혁결판갑은 그 형태가 금관가야와 신라의 판갑과 다른 점에서 일본열도내에서 금관가야계 공인이 효고현 교자즈카고분 등의 출토품과 같은 금관가야산 철정을 가공하여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이시기 일본열도에 금관가야로부터 철기제작 공인이 이주한 것으로 본다. 이는 후쿠오카현 니시신마찌유적에서는 단야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는 것에서도 방증된다. 그리고 효고현 교자즈카고분에서는 일본열도의 최초의 마구가 부장된다. 교자즈카 마구는 실용품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이 시기 기마 풍습이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3-4세기 일본열도에 이입된 한반도 문화는 금관가야의 제도, 철기제작 기술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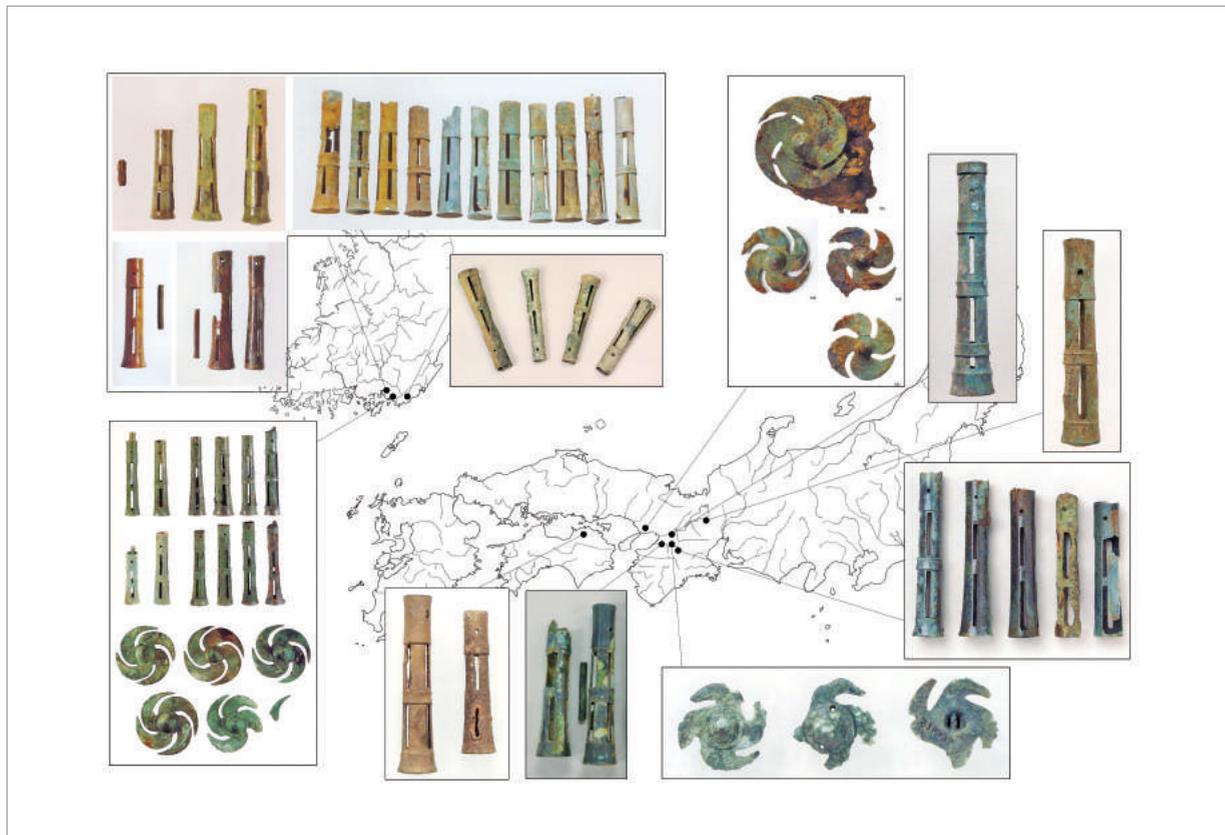
4세기 후엽 일본열도의 금관가야산 철정과 철제갑주, 마구, 통형동기와 김해지역 왕묘역인 대성동고분군의 긴키계 문물은 이시기 금관가야와 왜왕권의 밀접한 교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구야국 시기 대왜 교섭의 상대가 선사시대 이래 일본열도측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규슈세력이었으나, 금관가야 시기에는 긴키지역과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성동집단은 경주시 월성동가31호분과 가29호분의 하지키계 연질토기와 일본열도산 석전은 전자가 주로 김해지역에서 제작되는 것에서, 신라와 일본열도 교섭의 중계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 시기 새로이 등장하는 위신재는 갑주뿐 아니라 그 외 무구·무기·마구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것으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았다.

일본열도의 금관가야산 철기와 김해지역 왕묘역인 대성동고분군의 파형동기를 비롯한 기나이산 문물은 이 시기 금관가야와 왜왕권의 밀접한 교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구야국 시기 대왜 교섭의 상대가 선사시대 이래 일본열도측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규슈세력이었으나, 금관가야 시기에는 기나이지역과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열도의 왕묘를 포함한 유력 수장묘에 부장되는 파형동기가 부착된 방패, 석제품과 통형동기는 이 시기 왕권을 장악한 나라(奈良) 북부의 사키(佐紀)세력이 특별히 갖추어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형동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양동리고분군, 부산 북천동고분군에 집중하며, 그 출토 수가 일본열도 전역의 개체 수에 육박하는 점에서 철자원을 구하기 위한 왜왕권의 절실한 의도가 간취된다(그림 9).

400년 『광개토왕릉비』 경자년조에는 신라성을 침범한 왜가 고구려군에 패한 후 임라가라로 도망하였다는 기록이 보여 주목된다. 임라가라는 김해지역으로 비정되어 이러한 고고자료와 문헌사료는 일본의 연구자가 주장하는 왜군의 독자적인 외정(外征)과 출병(出兵)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관가야 나아가 백제와 관련된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림 9〉 통형동기와 파형동기의 분포로 본 금관가야와 왜

1. 김해시 대성동13호분, 2. 김해시 대성동고분군, 3. 김해시 양동리고분, 4. 부산시 북천동고분군, 5. 가가와현 네코즈카고분, 6. 효고현 교자즈카고분, 7. 오사카부 시킨잔고분, 8. 오사카부 고카네즈카고분, 10. 시가현 아쯔지호단야마고분



왜냐하면 왜의 독자적인 출병이었다면 퇴각한 곳 즉 군선을 정박한 장소가 경주에 가까운 영일만 또는 울산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군이 고 김해만으로 퇴각한 것은 금관가야와 왜의 공동작전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자비마립간 6년(463년)에 왜인이 삼량성(歙良城)에 침입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갔으며 국경 부근에 두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보이는 것(선석렬, 2016)에서도 당시의 왜·가야 연합군의 침입로를 잘 알 수 있다. 즉 왜가 고 김해만을 통하여 삼량성 즉 양산을 거쳐 경주로 침공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에 대해 기나이세력으로 보지 않고 한반도 남부의 세력, 또는 일본 열도의 지역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해탄의 고도(孤島)인 후쿠오카현 오키노시마제사유적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벽옥제 석제품과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을 비롯한 문물과 대성동고분군의 키나이산 문물로 볼 때 나라북부의 왜왕권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특히 오키노시마유적 출토 기나이산 문물은 왜의 항해 안전과 전승을 기원하는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관가야는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신라의 남진정책에 대항하고, 대내적으로는 아라가야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왜와의 동맹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왜가 동원된 배경은 복잡하거나 그 가운데에는 금관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던 동래지역 즉 북천동세력에 가해지는 신라의 영향력 증대와 이와 함께 가해지는 압박에 대한 금관가야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왜의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나라奈良 북부세력은 금관가야와의 제휴를 통하여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신 위세품과 철 등의 필수물자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열도내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것이다.

IV. 아라가야와 왜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위치한 ‘남고북저’ 지형의 분지이다. 남쪽에는 여항산이 솟아있고, 이를 통해 창원, 마산, 진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뻗어 나온 구릉들 사이로 흘러 평야를 적시고 남강으로 유입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위치하여 남강, 낙동강과 남해안을 통해 가야 전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다. 즉 서북쪽으로 남강을 따라 올라가면 진주와 산청으로 통하고, 남강을 내려와 낙동강을 건너면 창녕에 달한다. 여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황강을 통해 다라국의 합천과 그 내륙에 닿으며, 회천을 통하면 대가야의 고령지역으로 연결된다. 창녕에서 낙동강을 통해서 내려가면 밀양과 양산을 거쳐 고 김해만에 달한다. 한편 육로로는 동서로 뻗은 산지의 사면 구릉을 따라 마산, 창원에 연결되고 남쪽으로 나있는 곡간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 남해안의 진동만에 접한다. 진동만에는 청동기시대의 대형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고 요녕식동검이 출토되어 일찍부터 이를 이용한 내륙과의 교통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는 대성동고분군의 대형 목곽묘와 같은 왕묘가 조사되지 않아 일본열도에 이입된 아라가야 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나 아라가야 토기의 광역 분포망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

3-4세기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특징적인 기종은 노형기대, 고배, 승석문양이부호이며, 그 분포의 중심은 함안분지를 둘러싼 남강하류역 양안과 진동만 일대이다.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유역의 경우 중류역의 산청, 삼가지역에서 출토하며, 황강유역에서도 그 중류역의 합천군 저포리지역에서 노형기대, 발형기대, 고배, 양이부승석문호와 같은 기종조합이 일치하고 그 형식변화가 아라가야양식과 유사하여 남강, 황강수계와 남해안 일대를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금관가야권과 신라권인 경주지역을 비롯한 영남 전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이들 지역의 토기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부산시 북천동54호분, 57호분, 60호분, 김해시 대성동13호분, 18호분, 합천군 옥전54호분, 대구시 비산동(영)2호목곽묘, 칠곡군 심천리54호분, 경주시 구정동3곽, 구어리1호분, 울산시 중산리75호분과 같은 수장묘에서 다수 출토되는 것에서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수장간 정치적 교섭에 의해 유통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수시 고락산성과 순천시 횡전면, 해남군 신금55호주거지 등 남해안에 연하여 분포하는 것이 주목된다. 더욱이 공주시 남산리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어 금강수계의 백제지역으로까지 반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대의 대국으로 성장하는 고성 소가야와 고령 대가야의 경우도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로 상정되는 그 관계망 속에 속해 있는 점에서 이 시기 아라가야 세력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승석문양이부타날호를 비롯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나가사키현 다이쇼군야마고분, 하루노쓰지유적, 후쿠오카현 미쿠모유적, 히가시시모타유적, 니시신마찌유적, 돗토리현 아오키이나바유적, 에히메현 사루카타니2호분 분구, 후나카타니유적, 가가와현 미야야마요, 교토부 시가이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이는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일본열도에서 주로 기나이와 도카이지방에 주로 출토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 시기 금관가야와 더불어 가야전기의 중심국인 아라가야도 일본열도와의 교류의 한 축을 형성한 것을 보여준다.

5세기 전엽 일본열도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스에키요인 오사카부 오바테라유적에 이어 시코쿠지방에서 초기 스에키요에 의한 조업이 개시된다. 시코쿠지방의 초기 스에키 가마인 가가와현 미야야마요, 미타니사부로이케요 공인의 계통은 통형 각부에 능형 혹은 원형의 투공을 가진 통형고배가 출토되고 같은 시코쿠의 에히메현 사루카타니2호분과 후나카타니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함안지역의 공인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교토부 우지시가이유적 출토 389년을 전후한 시기의 초기 스에키는, 발형기대가 소형인 점과 시문된 삼각거치문이 함안군 오곡리3호분, 마갑총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기나이지역에서 아라가야계의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열도에 이입된 아라가야 문물은 5세기 전엽 가가와현 미야야마요, 미타니사부로이케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새로운 토기인 회청색경질토기를 제작하는 제도기술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나라현 신토유적에서는 유로에서 화염형투창고배가 송풍관, 노재(爐滓), 철재(鐵滓), 시루 등의 한식계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에서 이 시기 일본열도에 아라가야로부터 철기제작 공인이 이주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5세기 전엽 아라가야의 제도, 철기제작 기술이 일본열도에 이입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아라가야 세력은 내륙교역의 회랑과 같은 남강수계를 통해 금강유역과 남해를 연결, 백제와

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4세기 말 오사카에서 개시된 일본 열도의 본격적인 회청색 경질토기 생산이 금관가야계 공인에 의해 주도된 점, 양동리, 대성동고분군 출토 중국·일본열도산 문물로 볼 때 아라가야세력에 의한 대외교섭의 중심적인 역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낙동강하류역에 분포가 한정되고 일본열도에서도 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긴키지역에 주로 출토되는 것과 아라가야의 독자적인 관계망과 대외교섭으로 볼 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대외교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단일 연맹체설과 금관가야 절대우위론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금관가야와 왜 왕권과의 중심지간 교섭 외에 각 지역간 교섭이 어느 정도 성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일본열도에서 초기 스에키의 생산이 다원적으로 개시되었고 더욱이 각 지역마다 가야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인을 초빙하여 각각 생산한 점이 주목된다. 즉 금관가야권역에서 주로 공인을 초빙한 왜 왕권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각 지역의 호족, 즉 규슈지방의 호족은 소가야, 시코쿠 지방의 호족은 아라가야를 통하여 초기 스에키의 공인을 초빙한 것이다. 따라서 4세기대에 이어 5세기 전반까지도 왜왕권이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의 독자적인 교섭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라가야는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실체로 보여지는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이 설치되고 임나부흥회의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에서 대가야와 함께 여전히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대외교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왔다. 그럼에도 6세기대에는 지역간 교류를 민감히 반영하는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일본열도에 이입되지 않고 또 이전 시기부터 이 지역에 이입된 왜의 문물도 도항리(경)13호분의 삼각관혈결판갑과, 말산리구34호의 직호문녹각제도장구(直弧文鹿角製刀裝具)가 출토된 것에 불과하여 고고자료와 문헌사료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가야의 중심국이었던 대가야를 견제하려는 백제의 의도에 의해 한시적으로 아라가야에 안라왜신관이 설치되고 이른바 임나부흥회의가 개최된 것에 기인한다. 또 그 시기가 이미 가야 멸망이 임박한 530년대 이후인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V. 소가야와 왜

소가야의 고지인 고성지역은 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반도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나아가면 사천을 거쳐서 남강중유역의 진주에 접한다. 동쪽으로 나아가면 당항만을 거쳐 진동만, 마산만, 고 김해만에 달하고, 또 연안항로를 따라 나아가 거제도를 거치면 곧바로 쓰시마(對馬)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 지역은 김해지역을 거치지 않고 일본열도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이다. 이는 고성에 인접하여 초기철기시대 일본열도 북부 규슈의 이주민이 거주한 남해안의 무역 거점인 늑도유적이 위치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5세기 초 소가야가 대두하는 것이 토기양식에서 확인된다. 즉 이 시기가 되면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하류역을 제외하고 낙동강상류역, 남강상류역, 황강수계, 남해안에 반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라가야를 중



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는 것은 400년 『광개토왕비』 경자년의 안라인수병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기 소가야양식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을 교체하듯이 산청군 중촌리고분군·묵곡리고분군, 남원시 월산리고분군, 거창군 말흘리고분군, 합천군 봉계리고분군·저포리A지구고분군, 함양군 손곡리고분군, 광양시 칠성리유적, 여수시 화장동나2호주거지, 죽포리고분군, 보성군 조성리유적 등 남강중상류역, 황강중상류역과 남해안에 걸쳐서 유통되고 또한 금강수계의 백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남해안에 출현한다. 여수시 죽림리고분군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5세기 전반의 석곽묘와 취락이 조사되어 여수지역이 소가야권역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초 함양군 손곡리4호분에서는 우수리18호분 출토품과 병행하는 고식의 수평구연호가 부장되고 남원시 아영지역의 청계리고분군에는 그 형식이 진주시 우수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여 소가야계 토기로 파악되는 장각의 발형기대가 확인되어, 이 시기 이미 소가야세력이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상류역에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 이는 역시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와 같이 선진문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제지역으로의 교통로를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여수시 죽림리고분군, 돌산도 죽포리고분군, 장동나1호주거지, 보성군 조성리구상유구, 장흥군 지천리나13호주거지에서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이 확인된다. 이 시기 소가야양식 토기가 특히 여수, 보성, 장흥지역의 거점 취락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소가야세력이 해상 활동을 통하여 남해안일대의 제 세력과 관계망을 형성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일본열도에서 소가야양식토기가 이입되고 제작되는 것이다. 나가사키현(長崎縣) 고후노사에(コフノサエ)유적, 토우토고야마(トウトゴ山)유적, 미시마(箕島)고분군, 오이타현(大分縣) 후나오카야마(船岡山)유적 출토 삼각형투창고배는 소가야양식으로 경남서부지역에서 반입된 것이다.

5세기 전엽 후쿠오카현 고테라(古寺)고분군,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고배의 삼각투창, 호의 수평구연에 가까운 구연부 처리와 동하부의 타날, 유공광구소호의 경부 돌대와 발형기대의 파상문 형태 등으로 보아 소가야양식 토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토기는 형식과 기종의 구성에서 소가야양식으로 파악되나 세부형태가 다른 점에서 후쿠오카켄 아사쿠라(朝倉)요산으로 본다. 그런데 오바데라유적과 달리 소가야양식과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토기가 1세대 공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오사카부 스에무라TK73형식과 같이 2세대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아사쿠라지역을 포함한 규슈지역에서 오바데라유적과 같은 조업 개시기 가마의 발견이 기대된다.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진료(神領)10호분 출토 통형기대와 발형기대는 소가야양식 토기이나 시코쿠(四國)지방의 이찌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야자키현(宮崎縣) 치쿠이케(築池)형혈묘 출토 통형기대도 소가야양식으로 같은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가마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다수 확인되는 것에서 소가야 공인의 이주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가야양식 토기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對馬)에 집중하고,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朝倉)요와 에히메현(愛媛縣) 이찌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요의 초기 스에키(須惠器)요의 공인은 출토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 기대가 소가야양식인 점에서 고성지역에서 이주한 공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가야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과 금강수계를 통하여 백제지역과의 교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와의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소가야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포상팔국난이다. 포상팔국난은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상팔국의 위치는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하는 고성읍, 사물국으로 비정되는 사천지역, 내산리고분군이 조영된 동해면 일대, 고총인 합성동고분군이 소재하는 마산, 구영리고분군과 장목고분이 조영된 거제도일대 등을 후보지로 생각된다.

그리고 해상에 면한 4지역 외에 남은 지역은 포의 의미를 해상에 면한 곳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내륙이나 수로에 면하였으나 묘제와 토기양식으로 볼 때 소가야 권역에 속하는 유력 지역인 산청군 중촌리, 합천군 삼가, 진주시 옥봉수정봉 일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성 송학동, 고성 동해면, 사천, 마산, 거제, 진주, 산청 중촌리, 합천 삼가일대가 포상팔국의 후보지로 상정된다. 그러나 그 시기와 공격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문헌사학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문헌사료로는 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이제까지 문헌사료를 논거로 대체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 포상팔국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헌사료의 기년도 불확실하며 특히 고고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가 남해안 일대에 형성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고고자료로 본다면 포상팔국난이 일어난 시기는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가 형성되는 5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생각된다. 또한 그 공격 대상은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관계망을 둘러싸고 소가야가 아라가야와 경쟁하고 있는 점에서 역시 아라가야세력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남해안일대에 소가야가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5세기 초 아라가야는 400년 『광개토왕릉비』 경자년 丙子年條에 보이는바와 같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가 쇠퇴한 이 시기 포상팔국은 연합하여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교역권을 아라가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포상팔국이 신라의 갈화성을 공격하였다는 기사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5세기 전반 일본열도와의 교역에서 신라와 소가야가 경쟁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VI. 대가야와 왜

대가야는 고령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황강수계, 남강 중상류역, 섬진강수계, 남해안일대, 금강상류역에 걸친 넓은 권역을 형성해 가야사상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와 『삼국유사』 5가야조에 대가야는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령지역은 내륙에 있으나 회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고, 안림천 지류에 연한 곡간통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면 황강에 접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이다. 더욱이 거창에서 육십령을 넘어가면 금강수계에 접하고, 남하하면 남강수계에 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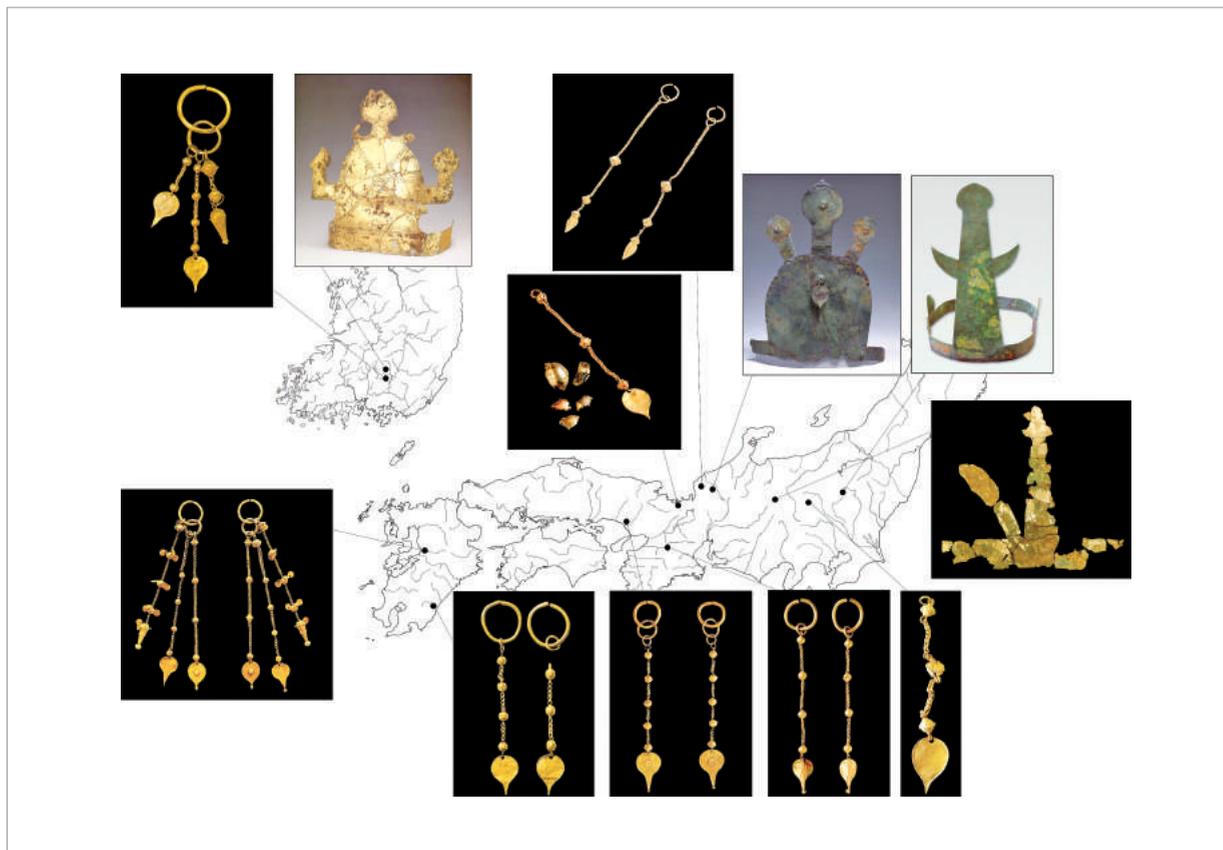


5세기 중엽 대가야는 고령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황강수계, 남강중상류역, 섬진강수계, 남해안, 금강상류역에 걸친 넓은 권역을 형성한 가야사상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대가야권역은 토기, 철과 같은 필수 물자와 금동제 용봉문화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와 같은 위신재의 생산과 유통으로 보아 호남 동부지역까지 지배 복속관계로 이루어진 동일한 정치·경제권으로 본다.

특히 5-6세기 가야 제국 가운데 독자적인 의장의 금공품을 제작한 곳은 대가야가 유일하며 특히 고령에서 제작된 금동제 용봉문화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는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이입되었다. 현재 확인된 대가야산 금공품은 금관 2점, 금동관 5점, 또한 금동제 용봉문화두대도는 49점, 금제 수식부이식은 229점에 달한다. 그 외 금동제 마구도 다수 확인된다. 수백 점에 달하는 화려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백제, 신라에 필적하는 독자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가야산 금공품의 수량은 신라에는 필적할 수 없으나 백제산 금공품의 수량을 웃도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신라와 백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독자적인 양식이다. 더욱이 고령에서 성주로 연결되는 금광맥이 존재하고, 현대까지 활발하게 채굴된 점에서 금광의 개발을 통한 금공품 생산과 유통이 대가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5세기 후반 일본열도속의 대가야문물

1. 고령 지산동32호분, 2. 합천 옥전28호분, 3.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4. 미야자키현 시모키타카타5호분, 5. 효고현 미야야마고분, 6. 나라현 니이자와 109호분, 7. 후쿠이 무카이야마1호분, 8. 후쿠이현 덴진야마7호분, 9. 후쿠이현 니혼마쯔야마고분, 10. 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 11.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 시10호분, 12. 도치기현 구와57호분





5세기 후반 정치적 지위를 상징하는 위신재인 후쿠이현 니혼마쓰야마고분 출토품을 비롯한 금동관과 일본열도 전역에서 출토되는 금제 수식부이식이 대가야계인 것은 이 시기 대가야가 왜와의 교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시기 대가야산 이식이 일본열도 전역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그림 10).

이 시기 일본열도의 유력수장묘인 동일본의 군마현 이데후타코야마고분,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긴키지역의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서일본의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등에서 대가야형의 위신재가 부장된다.

그런데 대가야문물이 집중 부장된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과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에서는 상감명문대도가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환두 내연에 각목문문가 시문되어 대가야산으로 판단되는 동경박물관 소장의 용문환두대도에도 상감 명문이 시문되어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용문환두대도의 서체와 상감 기법이 이나리아마고분의 명문철검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녕군 교동11호분의 명문 원두대도도 원두에 시문된 문양이 대가야마구에 보이는 능삼문인 점, 10호분의 용봉문환두대도가 대가야산인 점에서 역시 대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감 명문대도가 출토된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에 환두부 내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용문대도를 비롯한 대가야산 문물이 공반되고, 상감 명문대도가 출토된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야산 문물이 공반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가야에서 문자의 사용이 상당한 수준인 것과, 5세기 후엽의 일본열도 명문대도의 제작에 대가야로부터의 이주 공인(工人)이 참여한 것을 웅변하는 것으로 본다(그림 11).

이와 같이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서는 대가야 공인에 의해 제작된 명문대도가 왜왕권에 의해 각 지역의 호족세력에게 위신재로 분여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실은 이와 같은 장식대도를 매개로한 위신재 체계가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와 은장 오각형환두대도와 같은 장식대도를 위신재로 사용하며 다라국을 포함한 그 권역내를 통제한 대가야의 위신재 체계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관(冠)을 매개로한 신라와 백제와는 달리 장식대도와 같은 도검을 매개로한 위신재 체계가 양 지역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며, 왜의 위신재 체계가 대가야와 관련된 점에서 흥미롭다.

근래 이제까지 서일본을 경유하고 그 이입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온 동일본에 대가야산 문물이 직접 이입되고 그 빈도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 가운데 군마현 겐자키마가타로유적에서는 적석총과 주거지에서 부뚜막, 13호수혈에서는 말의 순장이 확인되고, 주변 10호분에서는 수식부이식과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수식부이식은 대가야산이며 시루와 옹형토기도 말각 환저의 기형과 격자타날문으로 볼 때 대가야계로 추정된다.

나가노현 아라이하라12호분 순장마에 동반한 마구는 합천군 옥전M3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대가야산이고, 나가노현 미야가이토SM03호분에 부수하는 SK64호수혈의 말과 동반한 f자형경관부비와 검릉형행엽, 환형은 주도 전형적인 대가야산마구의 조합이다. 나가노현 아제찌1호분에서는 대가야계의 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치바현 오사쿠31호분 출토 말에 동반하는 재갈도 전자와 같은 대가야계 마구이다.

이와 같이 동일본에 이입된 한반도 문물의 특징은 대부분 그 계통이 대가야에서 구해지며 호쿠리쿠에서





<그림 11>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아마(稻荷山)고분 출토 명문철검의 계보(1~4. 가야지역 출토품, 5·6. 합천군 옥전M3호분, 7·8.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



간토지역에 걸쳐서 분포하는 것이다.

특히 대가야 문물이 동해에 면한 호쿠리쿠지방에 연한 교통로에 따라 분포하고 중부지역의 산간 회랑을 통하여 동일본에 유입된다. 또한 대가야계 관이 후쿠이현 니혼마쓰야마고분 → 도야마현 아사히나가야마고분 → 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 → 도치키현 구와57호분 등 호쿠리쿠~간토지역에 걸쳐서 분포한다. 더욱이 대가야산 수식부이식의 분포권과도 일치하는 것이 주목된다. 수식부이식은 후쿠이현 니시즈카고분, 무카이야마 1호분 → 텐진야마 7호분 → 이시카와현 수이사카마루야마 5호분 → 나가노현 아제치1호분 →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10호분에서 분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동제품은 기나이지역이 분포의 중심이 아니고, 또한 기나이에서 동일본으로 가는 교통로상에 분포하지 않는 것에서 일본열도의 중심지인 이를 경유하지 않고 동해를 통해 호쿠리쿠지방을 경유하여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와카사만연안의 후쿠이현 니혼마쓰야마고분에서는 2점의 관과 텐진야마7호분, 무카이야마1호분, 니시즈카고분의 금제 수식부이식, 주젠노모리고분의 마구와 같은 대가야산 금공품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사집단과 관련된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시유적, 나가노현 미조구찌노즈카고분, 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에서는 대가야부터 이주한 수장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호쿠리쿠지방의 한반도계 문물의 이입 배경은 이 지역의 호족세력이 왜 왕권의 한반도 경영에 참가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464년 『일본서기』 유라쿠8년 조 임나왕가 호쿠리쿠지방 와카사의 호족으로 추정되는 가시와테노오미카루카 등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다. 즉 여기의 임나왕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대가야왕이 분명하고 공격의 대상이 고구려인 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487년 『일본서기』 겐조3년조 기노오히하노수쿠네가 임나를 근거로 고구려와 통하고, 임나인의 계책을 이용하여 백제를 공격한 기사이다. 기노오히하노수쿠네는 임나 즉 대가야와 관련된 점과 기씨인 점에 근거하여 대가야에서 백제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파견한 왜인으로 본다. 특히 기씨와 대가야와의 관계는 금동제 마구와 철제 마주 등의 대가야산 문물을 부장한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이 그 본거지에 조성된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이 지역 이와세센쓰카의 황혈식석실분에는 고구려의 천왕지신층에 보이는 황가구조물이 보여 흥미롭다. 이와 함께 고성군 송학동 1호분 B호석실의 계통에 대해 목봉을 근거로 이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이 대가야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전쟁에 왜왕권뿐만 아니라 호쿠리쿠지방과 기이지역과 같은 호족세력의 군사력을 활용하고, 호족세력들은 반대급부로서 대가야의 문물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래 대가야의 발전 시기에 대해 문헌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도 479년 남제 견사기록에만 의거하여 5세기 후엽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가야의 발전 시기는 대가야문물이 남강상류역에 출현하고,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과 대가야지역의 일본열도산 문물이 이입되는 5세기 중엽으로 본다. 당시 적대국인 신라가 낙동강하구를 장악하고 경쟁상대인 소가야가 사천만과 고성만에 포진하고 있어, 대가야는 반드시 섬진강로를 확보하여야만 비로소 양자간 교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5세기 중엽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은 섬진강수계의 호남 동부지역이 대가야권역에 포함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는 451년 대가야인 가라가 『송서』 왜국전에 등장하는 시점과 부합한다.



이제까지 대가야의 발전은 주로 고령과 안림천수계로 연결된 야로지역의 철산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 후 필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섬진강로의 확보, 특히 하동 대사진의 장악을 통한 대 일본열도 교역을 그 원동력으로 보았다.

필자는 대가야가 남강 상류역으로 진출한 후 남원분지로 남하하여 구례를 거쳐 섬진강하구의 교역항인 하동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본다. 대가야는 하동의 확보만으로는 남해안의 안전한 교통이 불가능하여 해상 교통과 군사적 요충인 여수반도를 장악한 것으로 본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내륙회랑인 남강로 뿐만 아니라 양 세력이 활동하던 남해안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세기까지 이입되던 금관가야산 문물과 5세기 전반까지 이입되던 신라산 금공품 대신 대가야산 금공품이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갑자기 유입되는 배경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대가야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특히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왜가 특히 금공품의 수입처를 신라에서 대가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대가야는 종래의 금관가야와 신라를 대신하여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교섭을 주도하며 대외관계에서도 가야의 맹주로서 군림하게 된다.

5세기 후반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화는 4세기에 금관가야가 전해준 철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제, 금동제 장신구, 금동제 마구를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 국가 경쟁력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 왜가 원했던 말과 그 사육방법을 전해 준 점, 더욱이 국가체제의 정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자의 사용을 본격화 시킨 점에서 대가야 문화는 일본열도의 문명화의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6세기 전엽 백제가 임나사현과 대사진을 점령함으로써 대가야는 남해안의 제해권과 교역항을 상실한다. 이에 동반하여 남조 문물을 앞세운 백제산 문물의 본격적인 일본열도 이입으로 인해 대가야와 일본열도의 교역이 퇴조하였으며 이는 대가야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Ⅶ. 맺음말

3~4세기 일본열도의 금관가야산 철기와 김해지역 왕묘역인 대성동고분군의 파형동기를 비롯한 기나이산 문물은 이시기 금관가야와 왜왕권의 밀접한 교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구야국 시기 대왜 교섭의 상대가 선사시대 이래 일본열도측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규슈세력이었으나, 금관가야 시기에는 기나이지역과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3~4세기 일본열도 출토 아라가야 양식 토기로 볼 때 아라가야 세력은 내륙교역의 회랑과 같은 남강수계를



통해 금강유역과 남해를 연결, 백제와 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5세기 전반 일본열도 출토 소가야 양식 토기로 볼 때 소가야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과 금강수계를 통하여 백제지역과의 교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와의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후반 이전시기 이입되던 금관가야산 문물과 신라산 금공품 대신 대가야산 금공품이 일본열도에 갑자기 유입되는 배경은 대가야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특히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왜가 특히 금공품 등의 수입처를 신라에서 대가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시기 대가야는 금관가야와 신라를 대신하여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교섭을 주도하며 가야의 중심국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야 제국 가운데 독자적인 의장의 금공품을 제작한 곳은 대가야가 유일하며 특히 고령에서 제작된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는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이입되었다. 현재 확인된 대가야산 금공품은 금관 2점, 금동관 5점, 또한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는 49점, 금제 수식부이식은 229점에 달한다. 그 외 금동제 마구도 다수 확인된다. 수백 점에 달하는 화려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백제, 신라에 필적하는 독자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가야산 금공품의 수량은 신라에는 필적할 수 없으나 백제산 금공품의 수량을 웃도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신라와 백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독자적인 양식이다. 더욱이 고령에서 성주로 연결되는 금광맥이 존재하고, 현대까지 활발하게 채굴된 점에서 금광의 개발을 통한 금공품 생산과 유통이 대가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시기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이 4세기에 금관가야가 전해준 철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제, 금동제 장신구와 마구를 포함하고 있어 양자 간 국가 경쟁력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 왜가 원했던 말과 그 사육방법을 전해 준 점, 더욱이 국가체제의 정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자의 사용을 본격화 시킨 점에서 일본열도의 문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신체를 장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특히 금제, 금동제의 장신구는 착장자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모, 이식, 대장식구를 제작하여 일본열도에 수출하였다. 당시 왜가 대가야산의 장신구를 수용한 것은 대가야와 왜와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5세기 후반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는 그 범위가 넓고 그 내부 구조가 명확한 상하관계가 확립되고 영역지배가 관철된 점, 일본열도의 문명화에 끼친 영향으로 볼 때, 규모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신라, 백제에 필적하는 고대국가단계로서 나아가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고고학에 의한 가야의 역사와 문명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사국시대의 설정이 기대된다.

박 천 수





참고문헌

〈국문〉

- 김용성, 2013,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순장과 사후세계』, 대구, 경상북도.
- 김태식, 1993, 『가야문명사』, 서울, 일조각.
-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2, 3, 서울, 푸른역사.
- 김태식, 2004, 『가야, 가야 사람, 가야 역사』,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서울, 해안.
- 김태식, 2008,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순천 한국상고사학회.
- 김현구 외, 2003, 『일본고기 한국 관계기사 연구(II)』, 서울, 일지사.
-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조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전주,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 박찬수, 1997, 『정치체의 상호관계로 본 대가야왕권』, 『加耶諸国の王權』, 서울, 圖書出版新書苑.
- 朴天秀, 1998, 『大伽耶墳墓の編年』, 『韓國考古學報』, 39, pp.89~124, 大邱, 韓國考古學會.
- 박찬수, 2000, 『考古學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부산,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해안.
- 박찬수, 2000, 『考古學으로 본 加羅國史』,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서울, 해안.
- 朴天秀·洪濬植·李柱憲·柳昌煥, 2003, 『加耶의 遺蹟과 遺物』, 서울, 學研文化社.
- 박찬수, 2004, 『가야토기에서 역사를 본다』,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서울, 해안.
- 朴天秀, 2007, 『새로쓰는 고대한일교섭사』, 서울, 사회평론.
- 朴天秀, 2009, 『5-6세기 大伽耶의 發展과 그 歷史的 意義』, 『高靈 池山洞44號墳-大伽耶王陵-』, 大邱, 慶北大學校博物館·考古人類學科·大伽耶博物館.
- 朴天秀,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서울, 진인진.
- 朴天秀, 2011, 『일본 속의 고대 한국문화』, 서울, 진인진.
- 朴天秀, 2012, 『日本 속 古代 韓國 文化-近畿지방-』, 서울, 東北亞歷史財團.
- 朴天秀, 2012, 『신라 가야 유물』, 『日本所在 嶺南地域 文化財 考古』,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 박찬수, 2014, 『출토유물로 본 삼국시대 남원지역의 정치적 항방』,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 대가야박물관·남원시·호남고고학회.
- 朴天秀, 2016, 『가야사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 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서울, 진인진.
- 선석열, 2016, 『신라 지방통치과정과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釜山, 부산광역시연세연구원.
- 李東熙, 2005, 『全南東部地域 複合社會 形成過程의 考古學的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 이성주·홍보식·박찬수·박승규·곽장근, 2000,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부산, 한국고고학회.
- 李政根,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慶山, 嶺南大學校 大學院.
- 이한상, 2004, 『대가야의 장신구』, 『大伽耶의 遺蹟과 遺物』, 高령, 大伽耶博物館.
- 이한상, 2006, 『裝飾大刀로 본 百濟와 加耶의 交流』, 『百濟研究』, 第43輯, 大田,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유병철, 2004, 『영남지방 출토 4~6세기 철족의 형식분류』, 『영남문화재연구』, 第17集, 칠곡, 영남문화재연구원.
- 趙榮濟, 1990, 『三角透窓高杯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7, 嶺南考古學會.
- 趙鼎植, 2005, 『洛東江 中流域 三國時代 城郭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희, 2008,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일문〉

- 野上文助, 1982, 『日本出土垂飾附耳飾』, 『藤澤一夫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叢』, p.282, 大阪, 藤澤一夫先生古稀記念論叢刊行委員會.
- 朴天秀, 1993, 『韓半島からみた初期須惠器の系譜と編年』, 『古墳時代における朝鮮系文物の傳播』, (第34回 埋葬文化財研究集會), pp.109~123, 奈良, 埋葬文化財研究會.
- 朴天秀, 1995, 『渡來系文物からみた加耶と倭における政治的變動』, 『待兼山論叢』, 史學編29, 大阪, 大阪大學文學部.
- 朴天秀, 1998, 『考古學から見た古代の韓·日交渉』, 『青丘學術論集』, 第12集, p.東京, 財團法人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朴天秀, 2004, 『大伽耶と倭』,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佐倉,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朴天秀, 2007, 『加耶と倭』, 東京, 講談社.
- 定森秀夫, 1982, 『韓国慶尚南道釜山金海地域出土陶質土器の検討』, 『平安博物館研究紀要』, 7, 京都, 平安博物館.
- 定森秀夫, 1994, 『陶質土器からみた近畿と朝鮮』, 『ヤマト王権と交流の諸相』, 東京, 名著出版.
- 申敬澈, 1983, 『伽耶地域における4世紀代の陶質土器と墓制-金海礼安里遺跡の發掘調査を中心として』, 『古代を考える』, 34, 大阪, 古代を考える會.
- 申敬澈, 1993, 『伽耶古墳文化の研究』, 筑波, 筑波大学文学博士論文.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 鈴木敏則, 1999, 『静岡県内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流通とその背景』, 『静岡県考古学研究』, No31, pp.71~86, 静岡, 静岡県考古学会.
- 小田富士雄, 1978, 『西日本発見の百濟系土器』, 『古文化談叢』, 第5集, p.115, 北九州, 九州古文化研究会.
-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東京, 吉川弘文館.
- 米田敏幸, 1993, 『古式土師器に伴う韓式系土器について』, 『韓式系土器研究』, IV, pp.98~106, 大阪, 韓式系土器研究會.
-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伽耶聯盟』, 『東洋史研究』, 48-4, 京都, 京都大學文學部.
- 田中俊明, 1992, 『大伽耶聯盟の 滅亡と任那-伽耶琴だけが 残った』, 東京, 吉川弘文館.
- 田中俊明, 2008, 『古代日本と加耶』, 東京, 山川出版社.
- 穴澤口禾光·馬目順一, 1993, 『陝川玉田出土の環頭大刀群の諸問題』, 『古文化談叢』, 30上, 小倉, 九州古文化研究会.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東京, 塙書房.
- 橋本達也, 1998, 『4~5世紀における韓日交渉の考古學的検討-豎別版·方形板革綴短甲の技術と系譜-』, 『青丘學術論集』, 12, 東京, 財團法人韓國文化振興財團.

